
일반논문

www.kci.go.kr

약천 남구만의 차운시 연구

김 효 정*

[초 록]

이 글은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차운시를 고찰하여 차운 대상과 형상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다. 남구만의 문집 『약천집』(藥泉集) 권1과 권2에 수록된 281수의 시 중 약 30%에 해당하는 62제 82수가 차운시다. 현전하는 시의 30% 해당하는 시가 차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남구만의 차운시는 인척, 친구, 동료와 같은 당대 지인과의 교류 과정에서 차운한 경우가 58수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과거 고인(古人)들의 시에 차운한 경우 16수, 그리고 자신의 자작시에 다시 첩운한 경우가 7수로 나타났다. 남구만은 차운시를 통해 당대 지인들과 소통하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여 나갔다.

남구만 차운시의 형상화 양상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원운자와 함께 했던 과거의 사적 기억들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공감대와 친밀도를 높여 나간 경우이고, 둘째는 부(賦)와 같은 직접적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약천 남구만, 차운시, 교류 관계, 사적 기억, 서술적 표현, 시제(詩題), 병서(并序)
Yakcheon Nam Gu-man, Rhyme-Borrowing Poem, Companionship, Private Memory, Descriptive Expression, Title of Poem, Preface

인 서술 방식을 택해 차운 대상과 있었던 일,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차분히 서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표출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시제(詩題)와 병서(并序)를 통해 시를 차운하게 된 상황이나 창작 이유, 차운 대상에 대해 자세히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작가 자신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1. 서론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50여 년간 관직에 있었던 대표적인 관각문인으로 소론의 영수이자 당대의 명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남구만은 28세인 1656년(효종 7) 별시에 합격하여 출사한 후 50년 동안 효종·현종·숙종 세 명의 임금을 보필하며 영의정까지 지냈으며, 일찍이 문장이 빼어나 문명을 떨쳤다. 그의 즐기에는 “남구만은 젊어서부터 문재가 있었고, 필법도 공교하고 아름다웠다.”¹⁾, “문사가 범도 있고 아름다웠으며, 필획 또한 예스럽고도 힘찼다.”²⁾ 라고 평하고 있어 그가 뛰어난 문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교유 관계에서 시는 매우 중요한 매체였다. 서로에게 일어난 희·노·애·락의 일상사와 심정을 시로써 전달하여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교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갔다. 이들이 교유 과정에서 주고받은 시에는 작가의 상황과 심정,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 문학적 성향까지 담겨 있다. 특히 차운시는 문인들의 교유 과정에서 활용빈도가 매우 높았다. 차운(次韻)은 상대방의 시에 화답하는 화운(和韻)의 일종으로 보편적인 한시 창작방법 중의 하나로 문인들 사이에 매우 활발하게

1) 『肅宗實錄』 권50, 肅宗 37年, 3月 17日, 첫 번째 기사. “九萬少有文才, 筆法亦工媚.”

2) 『肅宗實錄補闕正誤』 권50, 肅宗 37年, 3月 17日, 첫 번째 기사. “文辭典麗, 筆畫古健.”

활용되었다. 화운은 운(韻)의 활용 양상에 따라 차운(次韻)·의운(依韻)·용운(用韻)으로 나눌 수 있다.³⁾ 의운은 원작의 운과 같은 동운자(同韻字)에 해당하는 운자(韻字)중 아무거나 운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용운은 원작과 같은 운을 사용하지만 운을 놓는 순서는 창화자(唱和者)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차운은 원작과 동일한 운자를 사용하고 운을 놓는 순서까지 똑같은 경우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적 제약을 받는다. 언뜻 생각하면 의운이 가장 수월한 창작기법이라 널리 운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제약이 가장 많은 차운이 널리 행해졌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원운을 함께 공유해야하는 제약은 오히려 원운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교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문인들은 차운시를 통해 시재(詩才)를 뽐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전대(前代) 시인의 시에 차운함으로써 고인(古人)에 대한 흠모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⁴⁾ 그리고 시를 학습하는 초보단계에서는 학시(學詩)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차운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더욱 확산되고 보편화되어 일상적인 시작(詩作) 기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남구만의 문집 『약천집』 권1과 권2에는 281수⁵⁾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
- 3) 劉攽(2013), 「中山詩話」, 『역대시화』 3, 소명출판, p. 86. “唐詩賡和, 有次韻先後無易, 有依韻同在一韻, 有用韻用彼韻而不必次.”
- 4) 강성위(1998),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중국어문학』 30, 한국중국어문학회, p. 175.
- 5) 『약천집』 「총목」에는 900여 수의 초고 시 중 276수를 뽑은(草稿詩凡九百餘首, 選二百七十六首.)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약천집』에 수록된 시는 권1에 90제 127수, 권2에 109제 150수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1의 <城津感鄭東溟斗卿詩屏 并序>(1673년작)의 서문에 1671년에 지은 시가 1수 삽입되어 있으며, 권2의 <贈朱生 并序>(1688년작)의 서문에 1674년에 지은 시 1수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권27에 <贈靈巖權迪 康津李馥 海南韓翊周 三太守詩序>(1668.12.20.) 1수, 권30에 <答西溪丙子九月八日>(1696.9.8.) 1수가 수록

데 그중 약 30%에 해당하는 62제 82수가 차운시다. 현전하는 시의 1/3에 해당하는 시가 차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남구만은 당대의 명문장가로 이름이 드높았고 『약천집』에 적지 않은 분량의 시(詩)·서(書)·기문(記文)·소(疏) 등 다양한 시문들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문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영주의 문학론 연구⁶⁾를 시작으로 문학론과 전반적인 시세계 연구⁷⁾들이 선행되었고, 최근에는 교유 양상⁸⁾·유배시⁹⁾·만시¹⁰⁾·영물시¹¹⁾·상소문¹²⁾·기문¹³⁾·편집 특징¹⁴⁾ 등 다양한 방면으로

되어 있어 『약천집』 소개 남구만의 시는 총 281수가 된다(이황진(2018), 「남구만의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2)」,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pp. 227-230].

- 6) 김영주(2003),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7) 성당제(2004), 「약천 남구만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당제(2005), 「약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성당제(2005), 「약천 기문의 산수미 형상과 서술적 특징 : 「함흥십경도기」와 「북관십경도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영민(2005), 「약천 남구만 한시의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유권중(2005), 「약천 남구만의 유학사상」,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소; 이승철(2006), 「동해 약천마을과 약천 남구만의 <시조> 엮보기」, 『강원민속학』 20, 강원도민속학회; 김성언(2007), 「남구만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 8) 최윤정(2011), 「書簡을 통해 본 박세당과 남구만의 교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 9) 이황진(2017),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 10) 하정승(2017),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 挽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47, 동양한문학회.
- 11) 김묘정(2017), 「藥泉 南九萬의 연작영물시 고찰 — 「영유시」 20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 12) 김지용(2015), 「약천 남구만 소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재환(2016),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상소문(上疏文)의 구성(構成) 원리(原理)와 전개(展開) 양상(樣相) — 『장소회고』(章疏彙攷)와 『소차가칙』(疏筭可則) 소재(所在) 사직상소문(辭職上疏文)을 중심(中心)으로 —」, 『한민족어문학』 74, 한민족어문학회.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장가로 알려진 남구만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가 시인으로서도 상당한 역량을 지닌 인물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구만의 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차운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차운의 대상과 원운이 존재한다는 점은 자유로운 시 창작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원운시와 같은 운을 사용하더라도 전개되는 시의 시상은 작가 개인의 심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작가의 역량에 따라 원운시와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운시는 작가의 의식과 문학적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장르가 된다고 생각한다. 차운의 대상을 통해 시인의 사적·공적 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고, 그 관계망 속에서 공유하는 상황과 감정 속에서 작가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구만의 차운시를 고찰하여 차운의 대상을 분석하고 형상화 양상을 살펴 그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약천집』과 남구만의 차운시 개관

『약천집』은 남구만 사후 12년 후인 1723년(경종 3)에 34권 17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권1과 권2에 1659년 31세 때의 작품부터 1711년 졸할 때까지 53년 동안 지은 시들이 창작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체 34권 중 시가 2권에 불과하다는 것은 『약천집』이 문(文)을 중심으로 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약천집』은 남구만의 아들 남학명(南鶴鳴, 1654-1722)과

- 13) 권진옥(2017),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의 기문(記文) 연구」,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 14) 이황진(2017), 「남구만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8), 「남구만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2)」,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남구만의 교유 인물과 『약천집』 「시」의 편집성향」, 『우리문학연구』 59, 우리문학회.

손자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는데, 『약천집』 <총목>(總目)에 “초고의 시 900여 수에서 276수를 뽑고, 문 1,400여 편에서 726편을 추려내었다.”¹⁵⁾라고 밝히고 있어 본래 남아있는 시문의 ⅔를 산삭했음을 알 수 있다. 83년이라는 남구만의 긴 생애를 비추어 볼 때 900여 수의 시작(詩作)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남구만이 시가 필요한 경우에만 창작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약천집』의 편집자인 남학명은 “문집을 편찬할 때 시문은 간략해야 하고, 편지는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글로 그 인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¹⁶⁾라고 밝히고 있어 『약천집』의 선별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황진은 『약천집』의 편집 체제와 편집 의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몇 가지 선별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⁷⁾ 『약천집』 소재 시는 편집자인 남학명과 남극관의 시관(詩觀)과 정쟁이 치열하던 당대 정치적 상황, 그리고 남구만의 정치적 위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선별된 것으로 남구만을 존숭하는 후손들의 시선이 담겨있는 것이라 하겠다.

『약천집』 소재 시들은 비록 편집자의 편집 의도에 의해 선별되어 편차된 것이지만 시 속에 담긴 정서는 남구만의 삶과 생각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만의 고유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구만은 상대방과의 차운을 통해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기도 하였고, 고인의 시에 차운하거나 자신의 시에 재차 차운하

15) 南九萬, 『藥泉集』, <總目>. “草藁詩凡九百餘首, 選二百七十六首, 文凡一千四百餘首, 選七百二十餘首, 爲一千三百九十一板.”

16) 南鶴鳴, 『晦隱集』 권5, 「雜說」, <詞翁>. “凡纂文集, 詩文宜從簡約, 而書牘最是流出胸中之文, 可以想見其人物. 如畫像之不取貌美. 只以恰似爲準之義也.”

17) 이황진은 『약천집』 소재 시의 편집 체제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이황진(2017), 「남구만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8) 「남구만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2)」,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남구만의 교유인물과 『약천집』 「시」의 편집성향」, 『우리문화연구』 59, 우리문화학회].

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약천집』 소재 남구만의 차운시는 62제 82수로 전체 281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약천집』에는 31세 때인 1659년 이후의 작품부터 수록되어 있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실제 창작한 차운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운시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표 1〉 남구만 차운시 목록¹⁹⁾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1	次韻贈崔生錫萬後改錫鼎	1	7언배율	1660년	崔錫鼎, 『明谷集』	제자	
2	鎮川客舍, 次韻退陶詩 并序	1	7언율시	1662년	李滉, <鎮川東軒>, 『退溪集』 卷1. <원운 제사>	고인	
3	密陽次彝仲寄示韻	1	5언율시	1662년	李敏弼, <寄贈南雲路二首, 時以禱祭官往嶺南. 雲路以賑恤御史在本道>, 『西河集』 卷3.	친구 (사돈)	
4	梁山次韻鄭誦黃山歌	1	7언배율	1662년	鄭誦, <荒山歌>, 『雪谷集』 下	고인	
5	長鬢客舍, 次壁上韻	1	5언율시	1662년	미상	-	
6	安東次成使君後高映湖樓韻	2	7언율시	1662년	成後高(1615-1673)	동료	
7	直廬愁寂, 疊前韻懷僚友	1	5언율시	1663년	南九萬, <蕩春臺>, 『藥泉集』 卷1.	본인	
8	大王大妃殿患候平復後, 次白軒李相國 景奭韻	2	7언절구	1664년	李景奭, 『白軒集』, <원운 수록>	동료	

18) 차운은 화운의 일종이므로 남구만의 차운시에는 화운시와 자작시에 차운한 첩운 시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19) 남구만의 차운시는 대개 원운도 함께 병기(併記)하고 있으나 시제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본 표에서는 원운자의 개인문집에서 원운의 시제와 『약천집』에 수록 되어 있지 않은 원운을 찾아 최대한 수록하였다. 문집이 남아있지 않은 원운자는 생몰년을 표기하였으며, 원운이 남구만의 시와 함께 부기(附記)된 경우는 <원운 수록>으로 표기하였고, 병서(并序)에 원운을 제시한 것은 <원운 제사>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문집은 있으나 원운 작품이 없는 경우는 원운자와 문집 이름만 표기하였다. 또한 『약천집』과 개인문집에 모두 수록된 경우 개인문집을 먼저 표기하고 『약천집』에 수록된 것은 <원운 수록>으로 표기하였다.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9	送修上人歸金剛 次軸中韻 并序	1	5언율시	1664년	修上人(?-?)	지인	
10	李評事季周端夏 將發北塞之行. 余與洪都尉得箕, 申寅伯晟, 李彝仲, 出送于東郊, 薄暮還入都門, 城頭皎月初上. 因同上城樓, 呼韻賦詩, 縱飲極醉而歸. 彝仲追成一詩, 以記其事, 李景略倘恨不與會, 次其韻以示余, 聊獲答之	1	7언율시	1664년	李敏敍, <東門送松岡北幕之行 與諸友因登城樓翫月>, 『西河集』卷4.	친구 (사돈)	
11	次韻丁縣令詩. 南大川石壁刻一絕曰, 萬古經過地, 山川幾換名, 從今多歲月, 誰記此金城. 嘉靖戊申秋, 縣令丁玉精	1	5언절구	1665년	丁玉精(1545-?), <원운제사>	고인	
12	金益亨言, 渠少時受學於鄭玄谷百昌, 其時鄭公寓居楊根江上. 任疏菴叔英·李澤堂植俱斥於時, 居止相近, 從遊甚樂, 唱酬篇什, 溢於几案云. 余聞而感焉. 使金生誦所記三公詩各一章, 輒步其韻以識之	3	7언절구	1665년	鄭百昌(1588-1635) 任叔英(1576-1623) 李植(1584-1647)	고인 고인 고인	
13	彝仲出錦城, 永叔寄詩, 彝仲次其韻, 要余屬和, 伊時永叔又出舒川, 不勝俛仰, 情見于辭.	1	5언고시	1667년	金萬基, <夜月憶彝仲, 仍敘感懷>, 『瑞石集』卷3.	친구 (사돈)	
14	白巖寺次圃隱韻	1	7언율시	1668년	鄭夢周, <長城白岳寺雙溪寄題>, 『圃隱集』卷2.	고인	
15	次韻白軒李相國賜几杖榮恩詩	1	7언배울	1668년	李景奭, <賜几杖, 謹識感祝之意 賦七言律十韻>, 『白軒集』卷52 別稿	동료	
16	將築廣陵之居, 次李惠仲敏迪韻述懷	1	7언율시	1669년	李敏迪, 『竹西集』	친구	
17	惠仲嗜酒不已, 將成病, 余屢以爲戒, 未嘗不心折而輒復陶然. 昨者洪都事宇熙一醉不起, 余聞之瞿然, 聊次陶靖節止酒詩韻以贈, 若有味斯言, 則必有感于中者矣	1	5언배울	1669년	陶淵明, <止酒>	고인	
18	次李承旨季周韻	1	7언절구	1671년	李端夏, 『畏齋集』	친구	
19	次李評事樂甫憲寄示之作, 兼奉都事判官	1	7언율시	1673년	李憲(1628-1679)	동료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20	玉連堡, 次荷谷韻	1	5언배율	1673년	許筭, <題玉連堡, 在富寧府西南四十里許。設萬戶, 『續補遺』, 『荷谷集』	고인	
21	病臥北行營, 次朴評事泰尙投示之韻, 兼簡鏡城朴判官信圭	1	7언율시	1674년	朴太尙(1636-1696)	동료	
22	子婦李祥祭夜, 往彝仲宅, 彝仲遭憂, 爲營葬往春川。獨臥愴恨, 永夜無寐, 見壁間有小紙, 出而視之, 乃叔父南遷時, 路中悼念惠仲, 寄彝仲詩及彝仲和章。反覆悲吟, 存亡離合之感, 觸境而發, 心焉如割, 聊次其韻, 續成二首, 以記此時此夜爲情之難, 送獻叔父。而彝仲方號擗皇皇, 不可寄以有韻之文, 姑俟異日布焉	2	7언절구	1674년	南二星(1625-1683), <원운 수록> 李敏敘, <次寄宜拙謫居>, 『西河集』卷2.	숙부 친구	
23	重到洗夢齋, 次前韻	1	7언절구	1675년	南九萬, <名廣津新齋曰洗夢>, 『藥泉集』卷1.	본인	
24	次韻答李燕岐景略	1	7언절구	1675년	李儁(1631-1695)	친구	
25	省叔父于白川謫所, 歸時相送于江西寺, 叔父贈一律, 敢次韻以呈。前秋亦相送于此	1	7언율시	1676년	南二星, <원운 수록>	숙부	
26	至船頭, 叔父又題絕句于扇, 謹次韻呈上	1	7언절구	1676년	南二星, <원운 수록>	숙부	
27	廣津別墅, 次西溪朴兄季肯世堂韻	4	7언절구	1676년	朴世堂, <藥泉別業, 贈南雲路>, 『石泉錄』上, 『西溪集』卷2. <원운 수록>	인척 (자형)	
28	蘆谷村舍溪邊, 次李錫余三錫韻	1	7언율시	1676년	李三錫(1624-?)	친구	
29	酬南尙書雲卿龍翼見懷之作, 次其韻	1	5언고시	1677년	南龍翼, <八哀四歸>, 『壺谷集』卷10. <원운 수록>	인척	
30	和光州李使君彝仲白巖感舊寄示之作	1	7언율시	1677년	李敏敘, 『西河集』	친구	
31	敬次叔父下示韻	2	7언절구	1679년	南二星, <送舍姪于扶餘 還寓恨吟>, <원운 수록>	숙부	
32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3	7언율시	1679년	金德恒(?-?) <원운 제사>	지인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33	余之南竄也。崔校理汝和錫鼎，意余行路由鳥嶺。自榮川出迎咸昌，而余由八良峴以來，故不相值。到配後汝和寄咸昌二律，次韻以答	2	7언율시	1679년	崔錫鼎, <奉寄南先生南海謫所>, 『榮州錄』, 『明谷集』 卷2. <원운 수록>	제자	
34	赦歸遊龜山僧舍，次叔父下示韻	2	7언율시	1680년	南二星, <원운 수록>	숙부	
35	酬大學士西河李彝仲傳硯詩	1	7언율시	1683년	李敏鉉, <贈大學士藥泉>, 『西河集』 卷5.	친구 (사돈)	
36	榛子店壁上，次季文蘭韻 并序	2	7언절구	1684년	季文蘭, <원운 제시>	고인	
37	路中又次韻	2	7언절구	1684년	季文蘭, <원운 제시>	고인	
38	次李景略韻	1	5언율시	1686년	李樞(1631-1695)	친구	
39	乞暇來琵琶潭，山僧自心者來云其師生浩詩軸中，有余辛丑暮春所題，感念今昔，更次其韻，使之歸示其師	1	7언절구	1686년	南九萬[辛丑年(1661)에 지은 시에 차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원운은 수록되어 있지 않음]	본인	
40	豐潤次谷文張贈詩韻	1	7언율시	1686년	谷文張, <원운 수록>. 남구만의 『藥泉集』 卷29. 『雜著』 <燕行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지인	
41	次書狀韻	1	7언율시	1686년	吳道一, <寄呈正使 2首>, 『西坡集』 卷3, 『燕槎錄』	동료	
42	次韻金領相壽恒助祭太廟，扈還雨下頌禱之作	1	7언율시	1687년	金壽恒(1629-1689), 『文谷集』	동료	
43	次雲卿大學士丙寅秋宗會詩韻	1	7언율시	1687년	南龍翼, <題司宗稷卷>, 『壺谷集』 卷3.	인척	
44	七夕後二日，成宗會于壺谷大學士宅，主翁先成一律要和，率率奉次。是日前掌令弼星，軍資判官得箕，啓夏，受萬，狼川縣監尙熏，前驪州牧使益熏，弘文校理致熏，聖基·聖俞·磐·鶴鳴，戶曹佐郎正重，進士就明，世重來會。長興居極隘亦不期而至	1	7언율시	1687년	南龍翼, 『壺谷集』	인척	
45	涪溪朱生楹次余贈呂相國韻贈余，聊復次答	1	7언율시	1688년	南九萬, <涪溪分路, 贈呂相國聖齊>, 『藥泉集』 卷2.	본인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46	贈朱生 并序	1	7언절구	1688년	南九萬, 『藥泉集』, <원운 제사>	본인	
47	次慶興李府使華鎮韻 地主李使君贈余以詩, 且手寫平日所爲詩雜體三四十首示余, 頗有不遇之歎	1	7언율시	1688년	李華鎮(1626-1696)	동료	
48	咸興更次前示父老韻示按使	1	7언율시	1689년	南九萬, <過咸興贈父老>, 『藥泉集』 卷2.	본인	
49	待罪水江, 嶺樞李公尙眞, 亦屏處露梁, 有詩寄來, 奉次以答	1	5언절구	1689년	李尙眞, <원운 수록>	동료	
50	景略來訪, 次其韻	1	7언율시	1689년	李樞(1631-1695)	친구	
51	四月二十日, 承恩謫江陵, 李白川景略·崔安東錫鼎·朴堧泰輔韻詩送行, 次諸人韻	4	7언율시	1689년	1수: 崔錫鼎, <典農村舍, 送別藥泉南先生江陵謫行>, 『徒維錄』, 『明谷集』 卷3. <원운 수록> 2수: 李景略, <원운 수록> 3수: 朴泰輔, <典農村舍, 奉別舅氏藥泉南廂公江陵謫行其二>, 『定齋後集』 卷1. <원운 수록> 4수: 崔錫鼎, <又次朴士元韻>, 『徒維錄』, 『明谷集』 卷3. <원운 수록>	제자 친구 조카 제자	
52	五月將望, 延安府伯崔汝和來訪, 有詩次答	1	7언율시	1690년	崔錫鼎, 『明谷集』	제자	
53	龍里新居成, 次人贈詩韻	1	7언율시	1693년	미상	-	
54	次韻答尹承旨世紀	1	5언율시	1696년	尹世紀(1647-1712)	동료	
55	次韻答金承旨世翊	1	7언율시	1696년	金世翊(1634-1698)	동료	
56	伏次御賜詩韻 并小序	1	7언율시	1696년	肅宗, 『列聖御製』, <원운 제사>	임금	
57	中秋會西溪老兄於晦雲洞溪邊, 臨別蒙贈, 謹此奉酬	2	7언절구	1698년	朴世堂, <藥泉相公, 將歸琵琶潭>, 『石泉錄』 下, 『西溪集』 卷4. <원운 수록>	인척 (자형)	
58	春宮痘患平復, 和崔學士昌大喜慶之作	1	7언율시	1699년	崔昌大, 『崑崙集』	제자	

	제목	시수	형식	창작 시기	원운자/문집	관계	비고
59	次韻松月軒詩 并序	2	7언절구	1699년	心彦光(1487-1540), 『漁村集』, <원운 제시>	고인	
60	放還結城, 疊前韻贈碧虛	1	7언절구	1703년	南九萬, <贈碧虛上人>, 『樂泉執』 卷2.	본인	
61	自結城歸琵琶潭, 趙生國蓋送至牙山有詩, 次韻留別	1	7언율사	1706년	趙國蓋(?-?)	지인	
62	次韻題西溪贈外孫李後翁詩帖	1	5언고시	1710년	朴世堂, <贈外孫李後翁>, 『補遺錄』, 『西溪集』 卷4.	인척(자형)	
	총 62제	82					

위의 <표 1>에 나타난 62제 82수의 차운시를 차운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척, 동료와 같은 당대 지인과의 교류 과정에서 차운한 경우가 58수로 가장 많고, 과거 고인(古人)들의 시에 차운한 경우가 14수, 그리고 자신의 자작시에 다시 첩운한 경우가 7수이다. 차운의 대상인 원운(原韻)의 인물들은 총 38명으로 이중 11명은 고인(古人)이고 나머지 28명은 당대 직접 교류하던 인사들이다. 이중 중국인은 고인인 도연명과 계문란, 그리고 사행길에서 만났던 곡문장 3명뿐이다. 남구만 차운시의 대상은 크게 당대 교류 인물, 고인, 본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당대 교류 인물의 시에 차운한 경우

남구만이 차운한 당대 인물은 28명으로 이들과 주고받은 차운시는 58수에 이른다. 이는 전체 차운시 82수의 약 70%에 이르는 분량이다. 당대 인물과 나눈 차운시가 가장 많은 것은 평소 남구만이 당대 인사들과 교류 과정에서 차운시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남구만이 시를 교류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운의 대상과 시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이성(南二星, 1625-1683) 7수, 박세당(朴世堂, 1629-1703) 7수, 이민서(李敏敍, 1633-1688) 5수, 최석정(崔錫鼎, 1646-1715) 6수, 이준(李樞, 1631-1695) 4수, 남용익(南龍翼, 1628-1692) 3수, 이경석(李景奭, 1595-1671) 3수, 성후설(成後堯, 1615-1673) 2수, 김덕항(金德恒) 3수 그리고 1수씩 차운한 대상이 19명으로 나타난다. 이중 임금인 숙종과 승려 수상인, 관직 여부가 불분명한 김덕항, 조국진, 미상 1명을 제외한 23명의 인물이 모두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는 50여 년을 관직에 있었던 남구만의 생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론의 영수이자 영의정의 지위에 까지 올랐던 남구만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 편집자의 편집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차운의 주요 대상을 살펴보면 숙부인 남이성, 절친한 벗이자 사돈인 이민서와 그의 형 이민적(李敏迪, 1625-1673), 그리고 자형인 박세당, 조카 박태보(朴泰輔, 1654-1689), 종친 남용익 등으로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많다. 그리고 제자인 최석정(崔錫鼎, 1646-1715)과 최창대(崔昌大, 1669-1720) 등을 포함하면 인척과 문인 관계에 있는 이들이 남구만 차운시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들은 차운시를 통해 서로의 처지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여 나갔는데, 친족과 지기를 향한 걱정과 이별로 인한 아쉬움, 그리움 등이 주요 시상을 이룬다. 특히 차운의 빈도가 높은 남이성, 이민서, 박세당은 남구만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생 관직에 있었던 남구만에게 함께 정사를 의논했던 동료들 또한 차운의 주요 대상이었다.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성후설, 이경석, 이훤(李憲, 1628-1679), 이화진(李華鎭, 1626-1696), 이상진(李尙眞, 1614-1690) 등과 나눈 차운시는 상대의 공적을 치하하거나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부탁 등이 주요 시상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남구만의 차운시가 친인척과 당대 지인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창작된 것은 그가 차운시를 교유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여겼으며 이는 시의 순문학적 측면보다는 시의 효용적 측면을 중시했던 그의 시관(詩觀)²⁰⁾이나 학문의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했던 학문관²¹⁾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2.2. 고인(古人)의 시에 차운한 경우

남구만의 차운시에서 고인의 시에 차운한 경우는 11제 16수로 전체 82수 중 약 18%의 분량이다. 고인은 11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려의 문인 정포(鄭誦, 1309-1345)와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등 2명, 조선의 문인 이항(李滉, 1501-1570), 정옥정(丁玉精, 1545-?), 정백창(鄭百昌, 1588-1635), 임숙영(任叔英, 1576-1623), 이식(李植, 1584-1647), 허봉(許篈, 1551-1588), 심언광(沈彦光, 1487-1540) 등 7명, 그리고 중국인 도연명(陶淵明, 365-427), 계문란 등 2명이다. 이 중 중국의 전대(前代) 문인은 도연명이 유일하다.²²⁾ 대개의 문인들이 두보나 소식과

20) 南九萬, 『藥泉集』 권27, 「序」, <琴湖遺稿序> “余於詩, 所謂四聲八病者則誠非所習, 若所謂溫柔敦厚之教, 亦嘗略聞之矣. 詩之爲教, 本欲以溫柔敦厚者, 理性情而形風化, 感人心而裨世程. 然而學詩者, 或淒清以爲工, 或詰屈以爲奇, 或雕鏤以爲巧, 或枯槁以爲高, 詩之爲教, 豈宜使然哉.”

21) 崔昌大, 『崑崙集』 권17,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公家居廉儉, 性好學. 至耄老, 手不去書, 貫通經史, 而務致於實用.”; 南鶴鳴, 『晦隱集』 권4, 「遺事」, <先考遺事>. “公居常不談天人性命, 終日看書沈潛, 一以躬行心得爲務. 夷考其立志勸身, 勤勞盡瘁, 簡潔自守.”

22) 남구만이 차운한 도연명의 시는 <지주>(止酒)이다. 남구만은 친구인 이민직(李敏迪, 1625-1673)이 술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하자 도연명의 시 <지주>에 차운한 시 <惠仲嗜酒不已, 將成病, 余屢以爲戒, 未嘗不心折而輒復陶然, 昨者洪都事宇熙一醉不起, 余聞之瞿然 聊次陶靖節止酒詩韻以贈, 若有味斯言, 則必有戚戚于中者矣>를 지어주며 금주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남구만이 <지주>를 차운한 것은 도연명에 대한 흠모보다는 <지주>라는 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같은 중국 문인들의 시를 다량으로 차운하는 경우²³⁾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남구만이 옛 문인들을 흠모하거나 숭상하는데 차운시를 활용하기 보다는 당대 지인들과의 교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활용하였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의 효용성을 중요시 여겼던 남구만의 시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31세 이전의 시들이 단 1수도 실려 있지 않아 학시(學詩) 단계의 시를 살펴볼 수 없는 『약천집』의 편집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의 시에 차운한 경우는 작가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특히 고인의 시가 남아있는 공간과 그가 시를 지었던 상황은 작가의 감정을 촉발하여 시를 짓게 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 더욱이 고인이 시를 지었던 상황이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과 비슷할 경우 시간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인의 시에 화답하게 된다.

남구만이 고인의 시에 차운한 11제 16수 중 7제 10수가 고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진천객사(鎭川客舍), 양산(梁山), 남대천 석벽(南大川石壁), 백암사(白巖寺), 옥련보(玉連堡), 진자점(榛子店), 송월헌(松月軒)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창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한 고인의 시에 담긴 당시의 상황과 고인의 처지는 현재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 되면서 공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천객사에서 퇴도의 시에 차운하다>[鎭川客舍, 次韻退陶詩]는 진천의 객사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이황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이 시는 임인년(1542년)에 이황이 구휼어사로 이곳에 왔었음을 알고 예

있다.

23)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도연명, 주자, 소식 등 중국문인 12명의 시를 50여수 이상 차운하였다[장세후(2008), 「퇴계의 중국문인 차운시」, 『퇴계학논집』 3, 영남퇴계학연구원, p. 1]. 또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중국문인 문천상(文天祥)의 시 39수를 차운하였는데 이는 전체 160여 수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장세후(2008), 「여헌 장현광 차운시 소고」, 『퇴계학논집』 1, 영남퇴계학연구원, p. 1].

전 임인년의 굽주림이 현재의 임인년(1662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이다. 남구만은 이황의 시를 보면서 그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굽주린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게 다졌다. 또한 <옥련보에서 하곡의 시에 차운하다>[玉連堡, 次荷谷韻]는 1673년(현종 14)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함경도 부령지역의 옥련보에서 허봉의 시 <옥련보에서 쓰다>[題玉連堡]에 차운한 것이다. <옥련보에서 쓰다>[題玉連堡]는 1577년 허봉이 함경도 어사 시절에 지은 시로 북방의 경계를 다지고 임금께 충정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만이 함경도에 부임했을 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하였는데 남구만은 허봉의 시에 차운하면서 백성을 구휼하고 국경의 경계를 지키고 넓히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이처럼 남구만이 고인의 시에 차운한 시는 고인이 시를 지었던 같은 공간에서 고인의 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2.3. 본인의 자작시에 첩운(疊韻)한 경우

자신의 자작시에 차운한 것을 첩운이라고 하는데 남구만이 첩운한 시는 7제 7수이다. 첩운을 하는 경우는 대개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의 성격을 띠며, 내적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²⁴⁾ 남구만의 첩운시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숙직하는 곳이 너무 쓸쓸하여 앞의 시에 첩운하여 동료를 그리다>[直廬愁寂, 疊前韻懷僚友]에서는 관리로서의 부족함을 스스로 질책하기도 하고, <휴가를 받아 비파담에 오니, 산승인 자심이 와서 스승인 성호의 시축 중에 내가 신축년 봄에 지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옛일을 생각하여 다시 그 운에 차운하고 돌아가 그 스승에게

24) 신은경(2017), 「차운시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 윤선도의 시를 대상으로」, 『동양학』 6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 17.

보이게 하였다>[乞暇來琵琶潭, 山僧自心者來. 云其師性浩詩軸中, 有余辛丑暮春所題, 感念今昔, 更次其韻, 使之歸示其師]에는 관직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자기 반성적인 마음이 담겨있다.

특히 7수의 첩운시 중 4수는 유배기에 첩운한 시이다.²⁵⁾ 남구만은 4차례의 유배를 겪었다.²⁶⁾ 유배라는 특별한 상황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함흥에서 다시 앞에 지어준 부로의 시에 차운하여 관찰사에게 보여준다>[咸興更次前示父老韻示按使]에서는 자조적인 읍조림 속에서 자신을 굴원에 비유하기도 하고, <주생에게 주다[贈朱生] 병서(并序)>에서는 과거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 만났던 지인을 유배객의 처지가 되어 다시 만나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의 서글픈 회포를 담아내기도 하였다.

남구만이 자작시에 첩운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자신의 내적 정서를 진솔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남구만 차운시의 형상화 양상

산삭된 시가 ⅔에 달하는 『약천집』 소재 시만으로 남구만의 시세계 전모와 창작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편집자의 시관과 당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남구만의 정치적 위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편집 의도 또한 남구만의 시세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편집자인 남학명 역시 시를 잘했던 문인이었으므로 부친의 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편집 의도에 벗어나지 않으면

25) 유배기에 쓴 첩운시는 <涪溪朱生楹次余贈呂相國韻贈余, 聊復次答>, <贈朱生并序>, <咸興更次前示父老韻示按使>, <放還結城, 疊前韻贈碧虛> 등이다.

26) 이황진(2017),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p. 106.

서 시작 수준이 뛰어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을 것이다. 차운시는 원운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작가만의 심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므로 능숙하고 수준 높은 시작 능력을 요구한다. 원운이 있다는 제약이 오히려 시적 재량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남구만 차운시의 형상화 양상을 사적 기억의 공유를 통한 공감의 극대화, 서술적 표현에 의한 감정의 직접적 표출, 시제(詩題)와 병서(并序)를 통한 차운 대상과 창작 배경의 노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적 기억의 공유를 통한 공감의 극대화

남구만의 차운시는 당대 인물과 직접 교류하며 차운한 시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남구만은 차운시를 통해 원운자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였다. 특히 원운자와 함께 겪었던 직접적인 경험은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사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오래도록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끈이 된다. 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적 기억은 공감을 극대화 시켜 친밀도를 더욱 높여준다. 사돈이자 절친한 벗이었던 이민서의 시에 차운한 시는 6수가 남아있는데 이중 5수는 이민서의 문집 『서하집』(西河集)에도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이 공유했던 기억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 乘輶同此地	임금의 명으로 수레 타고 이곳에 함께 와서
交臂竟相違	팔을 맞잡았었는데 끝내 서로 헤어졌지
後發君能返	늦게 출발했던 그대는 돌아갔는데
先行我未歸	먼저 왔던 나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네
山花開又落	산의 꽃은 피었다가 다시 지고
江月缺還圓	강 위의 달은 이지러졌다 다시 차는데
却憶曹溪約	조계의 약속 도리어 떠오르니
尋春事已非	봄을 찾아 나서는 일 이미 그르쳤구려 ²⁷⁾

<元韻>

過嶺宜相見	고개를 넘어가 서로 만났었는데
回車始願違	수레를 돌리니 처음의 바람과 어긋났네
福星君自苦	복성인 그대 절로 괴로울텐데
明月我先歸	밝은 달빛에 나만 먼저 돌아왔네
江自丹陽好	강은 단양에서부터 좋고
山從竹嶺圍	산은 죽령을 따라 에워쌌네
扁舟逐春色	조각배로 봄빛을 쫓을 수 있으니
花事未全非	꽃구경 완전히 그르친 것 아니라네 ²⁸⁾

- (나) 昔年曾訪白巖僧 지난해 백암사의 승려를 찾아갔다
 偶續君詩記不能 우연히 그대의 시를 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했었지
 世事中間風雨過 세상일이 중간에 비바람처럼 지나가고
 鬢毛今日雪霜增 귀밑머리 오늘도 눈서리처럼 늘어만 가네
 西湖地盡潮聲近 땅이 다한 서호는 조수 소리 가까운데
 南國天長霽色澄 먼 하늘 남쪽은 하늘빛이 맑겠지
 忽荷新題遙寄示 홀연히 새로 지은 시 멀리서 부쳐주니
 却疑淸境再攀登 도리어 깨끗한 경지에 다시 오르는 듯하네²⁹⁾

(가)는 남구만의 <밀양에서 이중이 보내온 시에 차운하다>[密陽次彝仲寄示韻]와 이민서의 원운시 <남운로에게 부치다>[寄贈南雲路]³⁰⁾ 2수 중 첫 번째 수이다. 남구만은 1662년 경상도 진흙어사가 되어 밀양에 있었는데 이때 여제(厲祭)를 지내기 위해 잠시 영남 지역에 왔던 이민서와 만났다. 남구만의 시는 이민서와 밀양에서 헤어지던 순간의 기억을 소환하고 그때의 심정을 퓌진하게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절친한 벗

27) 南九萬, 『藥泉集』 권1, <密陽次彝仲寄示韻>.

28) 李敏紱, 『西河集』 권3, <寄贈南雲路. 二首, 時以厲祭官往嶺南, 雲路以賑恤御史在本道>.

29) 南九萬, 『藥泉集』 권1, <和光州李使君彝仲白巖感舊寄示之作>.

30) 李敏紱, 『西河集』 권3, <寄贈南雲路. 二首, 時以厲祭官往嶺南, 雲路以賑恤御史在本道>.

과 헤어지던 순간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이민서와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기도 하다. 이민서가 보낸 원운시에도 고개를 넘으며 멀리 밀양까지 가서 남구만을 만났다가 혼자만 돌아와야 했던 그때의 기억과 아쉬운 마음을 잘 드러나 있다.

먼 타향에서 오랜 지기를 만난 두 사람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만남 뒤 홀로 남아 벼를 보내야하는 이별의 슬픔은 만남의 기쁨보다 더욱 컸을 것이다. 이민서의 시가 함련에서 단양과 죽령의 외적인 풍광을 그린 것에 비해 남구만의 시에는 꽃이 피고 지고, 달이 찼다 이지러지는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여 홀로 남아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야속함과 헤어짐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아마 두 사람은 조계에서 봄놀이를 하자고 약속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는 한양으로 돌아와 남구만에게 시를 보내며 봄이 다 가기 전에 꽃놀이라도 할 것을 권하였다. 하지만 남구만은 미련에서 함께 할 벼이 없으니 봄을 찾아 나설 일이 없다는 화답을 하고 있어 이민서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시에는 먼 타향에서 조우했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으로 애뜻했던 서로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있다.

(나)는 <광주에서 사군 이이중이 백암사에서 옛날을 생각하여 보내온 시에 화답하다>[和光州李使君彝仲白巖感舊寄示之作]로 1677년 이민서가 광주 목사로 있을 때 보낸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이 시의 원운은 남아있지 않지만 시를 통해 두 사람이 예전 백암사를 찾아 함께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암사는 전남 장성에 있는데 포은 정몽주가 이곳에 들러 <장성 백암사 쌍계루에서 지어 부치다> [長城白岳寺雙溪寄題]를 짓기도 하였다.

이민서는 백암사에 들렀다가 남구만과의 추억이 떠올라 시를 지어 보냈던 것이다. 남구만은 이민서의 시에 화답하면서 작년에 백암사를 방문했었을 때 스님과 그대의 시를 이어서 외워보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예전에 백암사에서 함께 시를 지었던 기억을 소환하여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쟁(政爭)이 치열한 정국에서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늙어버려 벗의 시조차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서글픈 마음이 함련에 잘 나타난다. 경련과 미련에는 멀리 광주에 있는 이민서를 그리는 마음과 벗이 보내온 새로운 시에 위로받으며 기뻐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의 두 시는 남구만이 숙부인 남이성의 시에 차운한 시와 남이성의 원운시이다.

再到銀川再獨歸 두 번 은천에 이르렀다가 두 번 홀로 돌아가는데
離懷對酒更遲依 이별의 회환 담은 술잔 마주하니 발걸음 더욱 더디지네
寒雲不禁今朝散 차가운 구름 오늘아침 헤어짐을 막지 못하고
落葉還如去歲飛 낙엽은 지난해 날아갔다 돌아온 것 같네
尙喜江魚通海近 강의 물고기 바다 가까이 통함을 기뻐하고
豈愁秋雁向南稀 가을 기러기 남쪽 향함이 드문 것을 어찌 근심할까
臨分獻祝無他語 이별할 때에 축원하는 다른 말 하지 않으리니
垂老杯觴且慎揮 노년에 술잔 비우는 일 삼가십시오³¹⁾

<元韻>

蕭寺年年送爾歸 쓸쓸한 절에서 해마다 돌아가는 너를 전송했는데
一杯相屬轉依依 한잔 술 서로 권하니 도리어 의연해지네
西江日夕波逾起 서강에 해 지니 물결 더욱 거세지고
南國秋風雁獨飛 남쪽에 가을바람 부니 기러기 홀로 날아가네
晚境相期名節在 늙어서도 명예와 절개 갖추길 서로 기억하고
長途休怨信書稀 먼 길에 편지 드문 것 원망하지 마라
深源江渚當時淚 심원강 가에서 그때 흘린 눈물
可但區區惜別揮 어찌 다만 구구하게 이별에 뿌리겠는가

31) 南九萬, 『藥泉集』 권1, <省叔父于白川謫所, 歸時相送于江西寺. 叔父贈一律, 敢次韻以呈, 前秋亦相送于此>.

위의 첫 번째 시는 <배천의 유배지에 계신 숙부를 뵈고 돌아올 때 강서사에서 서로 전송하였다. 숙부께서 읊시 한 수를 주셔서 감히 차운하여 올리니, 지난해 가을에도 이곳에서 전송하였다>[省叔父于白川謫所, 歸時相送于江西寺. 叔父贈一律, 敢次韻以呈, 前秋亦相送于此]로 숙부인 남이성(南二星, 1625-1683)의 시에 차운한 것이고, 두 번째 시는 남이성의 원운시이다. 남구만은 4살 연상인 숙부 남이성에 대한 정이 유달리 깊었다. 남이성은 1675년(숙종 1)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중도부처 되자 이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진도로 유배되었다. 이후 황해도 배천으로 이배되었는데 1677년 남구만은 숙부의 유배지인 배천까지 직접 가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배천은 현재 황해도 연백지역으로 은천(銀川)으로도 불렸다.

남이성은 원운시에서 두 번이나 유배지까지 찾아와 자신을 걱정해주는 조카에게 명예와 절개를 지킬 것을 서로 기약하고 소식이 드물더라도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예전 심원강(深源江)가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을 끌어오며 지금 이별의 슬픔은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심원강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서글픈 일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기억임에는 틀림없다. 그때의 슬픔에 비하면 지금의 헤어짐이 큰 슬픔이 아니라는 말에서 자신을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는 조카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잘 나타난다.

남구만은 강서사(江西寺)에서 숙부와 헤어지며 그의 시에 차운하였는데 시제(詩題)와 수련의 내용을 통해 이번의 방문이 두 번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날수록 헤어짐의 아쉬움 또한 두 배로 커질 뿐이다. 두 번의 방문과 헤어짐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기억으로 이를 시에서 서술하는 것은 이별의 서글픔을 더욱 공감하게 되고 증폭시키는 장치가 된다. 경련은 배천이 바다와 가까워 기러기가 없어도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

는 곳을 말하며 먼 길에 소식이 드문 것을 원망하지 마라는 숙부의 걱정을 위로하며 답변하고 있다.

3.2. 서술적 표현에 의한 감정의 직접적 표출

『시경』(詩經)에서는 시의 체재(體裁)와 서술방식을 부(賦)·비(比)·흥(興)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賦)는 어떤 일을 그대로 서술하여 말하는 것이고, 비(比)는 비유하는 표현하는 것이고, 흥(興)은 다른 사물을 빗대어 읊은 것을 말한다. 남구만의 차운시는 부의 형식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 많다. 차운 대상과 있었던 일,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차분히 서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작가의 심상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된다. 벗과의 지낸 세월을 서술하면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문의 내력을 서술하면서 결속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며, 공적 관계에 있는 동료의 공적을 칭찬하며 상호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랐다.

다음의 시는 김만기(金萬基, 1633-1687)의 원운에 이민서가 차운하여 보내온 시에 차운한 시이다. 절친한 벗인 두 사람이 각각 나누와 서천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어 헤어지게 되자 함께 지나온 세월을 담담하게 서술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我生三十九	내가 태어난 지 삼십구 년
閱歲非不久	겪은 세월이 오래되지 않은 것 아니냐
無奈質固甚	자질의 고루함이 심한 것 어찌할 도리 없어
於道未窺牖	도를 창으로도 엿보지 못하였는데
譬彼瞽得相	저 눈먼 봉사(盲人)가 도움을 얻은 듯
幸託二三友	다행히 두세 친구에게 의탁하여
文章砒是非	문장의 옳고 그름을 경계하고
義理研可否	의리의 가부를 연마하였네

憂時勉激揚	시절을 걱정하여 격렬히 일어나기에 힘썼고
愛君期繩糾	임금을 사랑하여 잘못을 바로잡기를 기약했었는데
彝忽出錦城	彝仲이 갑자기 금성으로 나가고
永又宰湖右	永叔 또한 호남의 수령이 되니
俚俚我獨留	홀로 남은 나는 어쩔 줄 몰라
惘若失兩手	멍하니 양손을 잃은 듯하네
重吟送行詩	송별시를 거듭 읊고
再醉離筵酒	송별 자리의 술에 거듭 취해도
轉覺愁集鬢	근심이 귀밑머리에 모여 있음을 되려 깨달으니
難成笑開口	웃으며 입을 여는 것이 어려워지겠구나
自憐騎省直	절로 가련하구나, 기성에 숙직함이어
爭如會稽綬	어찌 회계의 벼슬과 다투겠는가
縱懷田園樂	제멋대로 전원의 즐거움 품었으면서도
猶慙塵事誘	오히려 세상일에 유혹되었으니 부끄럽네
待君賦歸來	귀거래사 지으며 그대를 기다릴테니
許我耕而耦	나와 짝해 농사짓는 것 허락해 주겠는가 ³²⁾

이 시는 <이중이 금성으로 나가자 영숙이 시를 부쳐 보냈는데, 이중이 그 시에 차운하고 나에게 화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영숙이 다시 서천으로 나가니, 나는 외로운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서운해하는 정이 나타나 있다>[彝仲出錦城, 永叔寄詩, 彝仲次其韻, 要余屬和. 伊時永叔又出舒川, 不勝俚俚, 情見于辭]로 오랜 지기인 이민서와 김만기가 지방 수령이 되어 떠나자 혼자 남은 심정과 이들에 대한 그리움, 귀거래의 희망을 담아 김만기 시에 차운한 시이다. 이 시의 원운은 <한밤중 달빛에 이중이 떠올라 이내 감회를 쓰다>[夜月憶彝仲, 仍紓感懷]³³⁾로 김만기의

32) 南九萬, 『藥泉集』 권1, <彝仲出錦城, 永叔寄詩, 彝仲次其韻, 要余屬和. 伊時永叔又出舒川, 不勝俚俚, 情見于辭>.

33) 金萬基, 『瑞石集』 권3, <夜月憶彝仲, 仍紓感懷>. “重露零如雨, 星回夜已久. 圓景度南榮, 流光入戶牖. 持之比顏色, 憶我平生友. 懸知千里共, 對此相思否. 迢迢

문집 『서석집』(瑞石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중(彝仲)은 이민서를, 영숙(永叔)은 김만기를 가리킨다.

이 시는 남구만이 두 사람을 만나기 전 모습, 만나서 학업을 함께 연마 하던 시기, 그리고 이별하던 순간과 이별 후의 현재 모습, 앞으로의 함께 할 미래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벗에게 말하듯이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1~4구는 벗들을 만나기 전 자질과 도가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 5~10구는 벗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며 충신이 되고자 기약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 11~14구는 이별하던 순간의 심정을 그린 것이다. 특히 13~14구의 ‘偃我獨留, 恍若失兩手’는 이들과의 헤어지고 홀로 남겨진 허전함이 얼마나 컸었는지 잘 보여준다. 15~20구는 벗들과 이별한 후 홀로 한양에 남은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당시 남구만은 ‘기성’(騎省)인 병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별 후 그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토로함으로서 벗들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전하고 있다. 21~24구는 항상 ‘귀거래’(歸去來)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현실의 삶에 얽매어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이 여기며 향후 벗들과 함께 밭을 갈며 살기를 청하고 있다.

이처럼 남구만은 마치 상대가 앞에 있는 것처럼 평이한 시어로 담담하게 말하듯이 서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시는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남구만과 남용익은 의령(宜寧) 남씨로 종친 사이이다.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위하는 정이 남달랐다. 『약천집』에는 남용익의 시에 차운한 시가 3수 있는데 대개 종친의 친목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間山川, 誰與舒窈糾. 別來歲晚晚, 落葉紛坐右. 阜蘭日以瘁, 採掇不盈手. 感懷劇含梗, 沈憂似中酒. 冥行蹈危機, 謂余增多口. 低垂困米監, 念子嬰黃綬. 逸人超世網, 達士輕外誘. 何當歸去來, 共學沮溺耦.”

聞道吾先自汝南 우리 선조는 여남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維時東土國分三 이때 우리나라는 삼국으로 나뉘어 있었지
 宜寧移籍支流遠 의령으로 본적을 옮기니 지류가 멀어졌지만
 忠景傳家德澤湛 충경공의 집안 전해져 베풀어 준 은혜가 넘치네
 凡在後孫須共睦 남아있는 후손들 함께 화목해야 하니
 新修一契許皆參 새로 만든 하나의 계에 모두 참여하세
 從茲挈榼春秋約 이제부터 술통 들고 봄가을로 만나길 약속하니
 本爲敦宗不爲酣 본래 돈독한 정을 위함이지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네³⁴⁾

이 시는 <운경 태학사가 병인년 가을 종회에서 지은 시에 차운하다> [次雲卿大學士丙寅秋宗會詩韻]로 남용익이 병인년(1687년) 종회에서 쓴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의령 남씨인 두 사람은 종회를 통해 집안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 시의 원운은 <동계계권에 쓰다> [題同宗稷卷]³⁵⁾로 남용익의 문집 『호곡집』(壺谷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의 차운 대상은 남용익이지만 시의 청자(聽者)는 후손들로 확장되어 있다. 수련과 함련은 의령 남씨의 시조부터 현재 본관이 의령이 된 가문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설명하듯이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의령 남씨의 시조는 중국 당나라 봉양부 여남(汝南) 출신 남민(南敏)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로에 태풍을 만나 신라에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남씨는 고려 후기에 영양, 의령, 고성으로 본관이 나뉘어졌는데 의령 남씨의 관조(貫祖)는 고려 충렬왕 때 통헌대부(通憲大夫) 추밀원직부사(樞密院直副使)를 지낸 남군보(南君甫)이다. 충경공(忠景公)은 조선 개국 공신이자 명재상이었던 남재(南在, 1351-1419)를 가리킨다. 의령 남씨 가문이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남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34) 南九萬, 『藥泉集』 권2, <次雲卿大學士丙寅秋宗會詩韻>.

35) 南龍翼, 『壺谷集』 권3, <題同宗稷卷>. “惟我東方大姓南, 一人其始派分三. 宗支漸別疏仍遠, 稷事將脩樂且湛. 長幼序倫分席坐, 春秋立約挈壺參. 門闈舊好從茲篤, 莫惜佳辰盡日酣.”

할 수 있다.

수련과 합련이 일방성을 띤 설명의 형태라면 경련과 미련은 후손들에게 화목과 종회 참석을 당부하고 동의를 구하는 양방향성의 어투로 전환된다. 돈종(敦宗)은 송조돈종(崇祖敦宗)을 말하는데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끼리 돈독한 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종친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기약하고 이를 독려하는 행동에서 종회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시는 이단하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자신의 목도한 현실의 모습을 핍진하게 그리고 있다.

渠填壑棄與途僵 골짜기에 버려지고 길가에 쓰러진 이들로 도랑이 채워지니
此事從前見豈嘗 이같은 일 예전에 어찌 일찍이 보았던가
賴有承宣方入奏 다행히 승선이 들어가 임금께 아뢰었다니
願將膏澤潤枯腸 기름진 은택으로 굶주린 백성들 배부르길 바라네³⁶⁾

이 시는 <승지 이계주의 시에 차운하다>[次李承旨季周韻]로 1671년 7월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기 직전인 6월경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계주’(季周)는 이단하(李端夏, 1625-1689)를 가리킨다. 그는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아들로 남구만과 친분이 두터운 벗이었다. 이단하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부친 이식과 더불어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남구만과 이단하는 당파를 넘어서 교류하였다.

남구만은 1670(현종 11) 7월부터 1671년 6월까지 청주 목사로 재임하였다. 당시 연속적으로 흉년이 들어 전국적으로 기근이 심했다. 대기근으로 인하여 거리에는 굶어죽은 시체들이 넘쳐났다. 기구는 이때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 청주 목사였던 남구만은 중앙조정에 구휼을 청하는 장계와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려 기근 구제에 힘썼다.³⁷⁾ 하

36) 南九萬, 『藥泉集』 권1. <次李承旨季周韻>.

37) 『顯宗改修實錄』 권23, 顯宗 11年, 12月 29日. 첫 번째 기사. “淸州牧使南九萬上疏,

지만 지방에서 올린 장계가 심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렸다. 승구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남구만의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이단하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구휼정책을 상소³⁸⁾ 하였다. 전구는 이때의 일을 서술한 것이다. 결구는 임금의 은덕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간곡히 전하고 있다.

3.3. 시제(詩題)와 병서(并序)를 통한 차운 대상의 소개와 시작(詩作) 배경의 노출

『약천집』 소재 남구만의 시에는 시제가 길고, 병서가 부기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시제가 긴 경우가 약 50제, 병서가 부기된 경우가 20제로 전체 200제의 시제 중 약 25%에 해당된다. 문인들의 시에서 시제가 길고 병서가 부기된 경우는 종종 있지만 남구만의 경우처럼 전체 시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請田稅及大同餘米，捧留本邑，以充賑資，東伍仍給復戶，毋失其心。且停訓局別隊保人徵捧米布之令，毋失其信。上下其疏于備局。議啓，東伍給復外，皆從其言。”

38) 『顯宗改修實錄』 권24, 顯宗 12年, 6月 7日. 첫 번째 기사. “執義李端夏上疏，請變通軍政，以裕國儲；勸民殖穀，以衍私儲。且陳務農賑飢之策，縷縷累千言，上優批答之，令廟堂議處。”

39) 이와 같은 양상은 남구만과 친분이 두텁고 동시대에 시문에 뛰어났던 이민서, 박세당, 남용익 등의 시에는 긴 시제(詩題)와 병서의 활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민서의 『서하집』(西河集)에는 48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긴 시제를 지닌 시는 없고, 병서가 부기된 시는 <육은시>(六隱詩) 1수에 불과하다. 박세당의 『서계집』(西溪集)에는 80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병서가 부기된 시는 없고, 시제가 긴 경우는 12제로 나타난다. 이중 차운시는 2제(『서계집』 권3, 「石泉錄」中 <伏蒙聖朝追諡先祖潘南先生，賜祭于墓，諸孫集而待，事既畢散歸，和叔有詩讚述盛典，謹次其韻>，<自去歲，經始東峯影堂于此，湖南徐處士聞而喜之，次前輩詠東峯事詩韻及自占韻，長短絕句，律古詩凡七首，既以抒其深感，而兼寓獎歎之意，三復歎聳，隨之愧惡，輒此攀和，處士素不識余，而余之獲和其詩者，今再矣。自以爲過當之幸云。八首>)에 불과하다. 남용익의 『호곡집』에는 1,220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제가 긴 시가 약 30제, 병서가 부기된 경우는 22제에 이른다.

이는 남구만 시의 중요 특징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⁴⁰⁾

차운시에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시제나 병서를 통해 시를 차운하게 된 상황이나 창작 이유, 차운 대상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총 62제의 차운시 중 시제와 병서를 통해 창작 배경과 동기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22제에 이른다. 이는 전체 차운시의 30%에 이르는 양이다. 차운시의 특성상 원운자와 창화자 사이에서만 있었던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시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시제와 병서를 통해 이를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시를 이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서가 부기된 차운시는 7제⁴¹⁾인데 <수상인이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고 시축에 차운하다. 병서>[送修上人歸金剛, 次軸中韻 并序]를 제외한 6제의 시에는 병서에 원운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이 자신이 차운한 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병서에는 차운 대상에 대한 소개와 시를 짓게 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여기에서 촉발된 감정이나 시를 짓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

남구만의 경우 긴 시제가 50제, 병서가 부기된 경우가 22제이므로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남구만의 시가 281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남용익의 경우 긴 시제와 병서가 부기된 시 중 차운시는 15제(긴 시제 5제, 병서 부기 10제)가 있지만 남구만의 경우처럼 병서에 원운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거나 원운을 수록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다(시 본문에 원운을 수록한 경우는 <疊用道春前後韻, 要和. 并序> 1수에 불과하다).

- 40) 시제의 장편화와 병서의 활용은 남구만의 연작영물시 <영유시>(詠柚詩) 20수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효정은 이와같은 현상을 남구만의 시작 습관으로 파악하였다[김효정(2016), 「藥泉 南九萬의 連作詠物詩 고찰 — <詠柚詩> 20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pp. 307-308].
- 41) 병서가 부기된 7제의 시는 <鎭川客舍. 次韻退陶詩. 并序>, <送修上人歸金剛, 次軸中韻. 并序>,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榛子店德恒示詩韻. 并序>, <榛子店壁上, 次季文蘭韻. 并序>, <伏次御賜詩韻. 并小序>, <贈朱生. 并序>, <次韻松月軒詩. 并序>이다.

다. 친분이 있는 인물에 차운한 시는 시를 짓게 된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원운자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친밀도가 높지 않은 경우 인물에 대한 소개와 일화를 상세히 서술함으로서 창작 배경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원운을 병서에 수록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시의 전문은 각주로 소개하고 시제와 병서만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먼저 두 개의 시제는 시를 짓게 된 상황과 동기를 시제 속에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경우이다.

자부(子婦) 이씨(李氏)의 상제(祥祭)를 지내던 밤에 내 이중(彝仲)의 집에 갔으나 이중이 친상(親喪)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춘천(春川)에 가고 없었다. 나는 홀로 누워 슬퍼하며 긴긴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벽 사이에 작은 종이가 있으므로 꺼내어 보니, 바로 숙부(叔父)께서 남쪽으로 유배 가실 때에 도중에 죽은 혜중(惠仲)을 슬피 생각하여 이중에게 부쳐준 시(詩)와 이중이 화답한 시였다. 반복하여 슬피 읊조리니 존망(存亡)과 이합(離合)의 감회가 촉발되어 마음이 에이듯이 슬퍼지므로, 그 시운에 차운하여 계속해서 두 수를 지어 이때 이 밤에 가누기 어려운 심정을 기록하여 숙부에게 보내 드렸다. 그러나 이중은 현재 올부짓고 가슴을 치느라 경황이 없으므로 운(韻)이 있는 글을 부칠 수 없기에 우선 후일을 기다려 전하려 한다.⁴²⁾

이 시는 숙부인 남이성의 시에 차운하여 보낸 시이다. 칠언절구 2수로

42) 南九萬, 『藥泉集』 권1, <子婦李祥祭夜, 往彝仲宅, 彝仲遭憂, 爲營葬往春川. 獨臥愴恨, 永夜無寐, 見壁間有小紙, 出而視之, 乃叔父南遷時, 路中悼念惠仲, 寄彝仲詩及彝仲和章. 反覆悲吟, 存亡離合之感, 觸境而發, 心焉如割, 聊次其韻, 續成二首, 以記此時此夜爲情之難, 送獻叔父. 而彝仲方號擗皇皇, 不可寄以有韻之文, 姑俟異日布焉.>. “清遊曾共竹林觴, 人事推遷一瞥忙. 中散云亡步兵遠, 蕭條非復舊詞場. 其二 中堂布奠且傾觴, 哭夭偏傷歲月忙. 此夜無人同此抱, 遙悲棘築於場.”.

구성된 시에 비해 오히려 시제가 긴 형식을 취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매우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시의 원운자와 시를 받는 대상은 남이성이지만 그 내용은 ‘죽음’이라는 인간사 최대의 슬픔을 겪고 있는 절친 이민서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담고 있다. 남구만은 이민서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마침 그 기일이 되어 딸을 잃은 이민서를 위로하고자 그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민서는 친상을 당해 춘천에 가고 없었다. 집에 돌아와 우연히 발견한 것은 1674년 숙부인 남이성이 진도로 유배 가는 도중 작년에 죽은 이민서의 형 이민적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민서에게 보내준 시와 이에 화답한 이민서의 시였다. 몇해 전 딸을 잃고 작년에 형을 잃었는데 이어 오늘 친상까지 당한 벼의 통곡하는 심정을 생각하니 남구만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짧은 시에 인생사의 허망과 슬픔을 다 녹여낼 수 없어 다소 긴 시제에 애절한 마음을 담아 기억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사(評事) 이계주(李季周) 단하(端夏)가 북쪽 변방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홍도위(洪都尉) 득기(得箕), 신인백(申寅伯) 정(戔), 이이중(李彝仲)과 함께 동쪽 교외로 나가 전송하고 저물녘에 다시 도성문으로 들어오니, 성 위로 밝은 달이 막 떠올랐다. 다같이 성루(城樓)에 올라가 운(韻)을 불러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돌아왔다. 이중이 추후에 시 한 수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경략(李景略) 준(儻)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 시에 차운하여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이에 답하였다.⁴³⁾

43) 南九萬, 『藥泉集』 권1, <李評事季周端夏 將發北塞之行. 余與洪都尉得箕, 申寅伯戔, 李彝仲, 出送于東郊, 薄暮還入都門, 城頭皎月初上. 因同上城樓, 呼韻賦詩, 縱飲極醉而歸. 彝仲追成一詩, 以記其事, 李景略儻恨不與會, 次其韻以示余, 聊獲答之.>. “城樓千尺勢危哉, 送客迴時月上來. 露洗寒光凝遠樹, 雲開晴景映層臺. 登臨縱有元規興, 搖落還多宋玉哀. 掃盡離愁成一醉, 挽鬚牽臂不須猜.”.

이 시는 1664년 이단하가 북방으로 나가게 되자 평소 친분을 나누었던 홍득기(洪得箕, 1635-1673), 신정(申鼎, 1628-1687), 이민서와 함께 이단하를 송별하는 자리에서 이민서가 지은 시에 차운한 시이다. 하지만 이 시는 송별하는 자리에서 바로 차운한 것이 아니라 그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준(李儻)이 아쉬운 마음에 이민서의 시에 차운하고 자신에게 화운할 것을 요구하여 지은 시이다. 만약 이렇게 시제에서 밝혀 놓지 않았다면 먼 훗날 남구만은 이 시를 송별자리에서 바로 지은 시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다소 긴 시제에 시작 배경을 서술하는 것은 그때의 기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상세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남구만이 남해로 유배 갔을 당시 자신을 찾아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김덕항의 시에 차운한 시의 병서로 차운의 대상과 시작의 배경과 동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원운까지 수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나는 남해(南海)로 유배 와서 여러 달 동안 병을 앓았다. 진주(晉州)의 선비 김군 덕항(金君德恒)이 월인(越人)의 기술에 익숙하다는 말을 듣고 만나볼 것을 청하였더니, 김군은 삼손(三嬪)의 길을 멀다고 여기거나 바다를 험하게 여기지 않고 찾아와 이틀 동안 머물렀다. 그와 함께 책력(冊曆)을 계산하는 법을 강론하고 시장(詩章)의 문예(文藝)를 변론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하니, 피로함을 잊게 하였다. 이에 나는 그가 배운 것이 해박하여 비단 의술(醫術)에만 치중하지 않았음에 놀랐다. 이곳에는 더불어 말할 선비가 없었는데 마침내 군을 만나니, 한공(韓公)의 이른바 ‘여러 걱정 속에서 혼자 웃음이 나온다’[發孤笑於群憂]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군은 또 자신이 손수 쓴 『당송연주시격』(唐宋聯珠詩格)이란 책을 보여주며, “제가 지금 늙어 세상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으로 여생을 마치고자 하는데, 고향의 이웃들이 모두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 한 수를 지어서 스스로 위로하였으니, 그 시에 ‘봄 지렁이와 가을 뱀 모이니 여러 모양인데, 한가로운 틈에 당송시

(唐宋詩)를 베껴쓰네. 사람들이 노안을 재촉하는 일이라 말하지만, 나는 가난한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재산이라 말하네. 다만 앞으로 몇 년을 더 볼 것인가에 웃을 뿐이니, 뒤의 아득한 궁기의 가업(家業) 돌아보겠는가. 오히려 오십 년 동안 게으름 누우치고, 때로 흰 수염 쓰다듬으며 쾌하게 읽는다네[春蚓秋蛇集衆姿, 偷閒手寫宋唐詩. 人言老眼催昏術, 我謂貧家暴富資. 但笑前瞻幾甲子, 其將後顧杳弓箕. 猶憊五十年來懶, 時撚霜髭快讀之.]라고 하고, 나리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시어 저의 뜻을 밝히고 사람들의 미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러겠다. 그러겠다.” 하고, 그 시에 차운하여 삼첩(三疊)의 시를 지어 주었다.⁴⁴⁾

위의 병서에는 원운자인 김덕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가 사는 곳, 자신을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와 준 일, 그리고 그가 매우 박식하고 의술에 뛰어난 인재임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가 지은 칠언 율시를 병서에 소개하며 이 시에 차운해 삼첩의 시를 지어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병서에 시를 짓게 된 상황과 더불어 원운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시를 주고받은 정황과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시를 이해하

44) 南九萬, 『藥泉集』 권2,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余竄南海, 抱疾連月, 聞晉州士人金君德恒習越人之術, 請與相見, 金君不以三餐爲遠, 滄溟爲險, 惠然來顧, 留之二日. 得其從容講乎曆算之法, 辨乎詩章之藝, 談之亶亶, 令人忘倦, 於是乎余驚其所學之博, 不但醫道, 爲可重也. 此地無人士與語者, 而乃得見君, 韓公所謂發孤笑於群憂者, 正余意也. 君又出示其手寫唐宋聯珠詩格一卷曰, 吾今年老, 無所爲於世矣, 於此竊有所好, 欲以之終年, 鄉隣皆以吾爲笑, 故作一詩以自慰, 其詩曰 ‘春蚓秋蛇集衆姿, 偷閒手寫宋唐詩. 人言老眼催昏術, 我謂貧家暴富資. 但笑前瞻幾甲子, 其將後顧杳弓箕. 猶憊五十年來懶, 時撚霜髭快讀之.’ 願吾子加惠以一言, 明吾之志而解人之惑. 余曰唯唯. 因次其詩韻, 爲三疊以贈之. ‘其一 嗜癖由來本性姿, 世人休怪子耽詩. 鳥飛魚泳初非勉, 秋奕僦丸豈待資. 江石不無欣雨燕, 天星亦有好風箕. 惟其酷愛方深造, 未必安排始識之. 其二 細聽高談接雅姿, 知君非特長於詩. 心通治曆明時法, 術蘊回生起死資. 自古醫方先本素, 從來數學始義箕. 還須向上窮源盡, 莫謂吾衰恐後之. 其三 樵悴形容骯髒姿, 南來一歲廢題詩. 病思陸氏醫方集, 貧乏蘇公竹節資. 此地不須文巾屈, 意天其以我爲箕. 只緣感子勤渠問, 強把荒蕪報贈之.’”

는데 도움이 된다. 원운이 따로 부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천집』의 경우 원운이 부기된 경우는 대개 평소 친분이 두텁고 자주 시를 수창했던 인물의 원운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원운이 병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 원운이 유실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운과 차운시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구만은 시제와 병서를 통해 원운자에 대한 소개와 창작 배경 등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는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도 시를 지을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4. 결론

남구만은 1656년(효종 7) 28세 되던 해에 별시에 합격하여 출사한 후 대사성, 함경도 관찰사, 병조판서 등을 두루 거쳐 영의정을 지냈던 관료 문인이다. 50여 년의 관직생활 동안 4차례의 유배와 수없이 반복됐던 삭탈관작은 순탄치 않았던 그의 환로(宦路)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예송 논쟁과 치열한 당쟁, 그리고 4차례에 걸친 환국 등으로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공정을 잃지 않으며 당파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행동⁴⁵⁾으로 효종·현종·숙종의 총애를 받았다.

『약천집』 소재 남구만의 시 281수 중 82수의 작품이 차운시이다. 이는 전체 시수의 30%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본고는 남구만의 차

45)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海美南相國社堂記>. “自黨禍之作, 端委廟堂之上, 秉勻軸而操權衡者, 其立心持論, 率多偏陂傾側, 有不能厭伏人志者. 獨藥泉相國南公則不然, 自爲諫官時, 其所排擊與其所營救, 必皆不失於公正, 及爲相, 其調劑酸鹹左右維持者, 又足以服衆心而護國脉. 其所秉執卓然, 然未嘗爲危言激論, 望之若可以提挈, 要之貴·育終莫之奪, 處至難之會, 而竟得以清節完名終, 蓋間世之偉人也.”

운시에 주목하고 이를 고찰하여 차운시의 대상을 개관하고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남구만의 차운시는 당대 교유 인물을 대상으로 차운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인의 시에 차운한 경우, 본인의 자작 시에 첩운한 경우 순으로 차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개의 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문인의 시를 차운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시가 31세 이후의 것만 남아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그가 차운시를 교유 관계를 돈독히 다져주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차운시는 당시의 상황과 운(韻)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남구만은 일방향성을 지닌 송시(送詩)나 증시(贈詩)⁴⁶⁾보다 차운시를 통해 교유 관계를 돈독히 이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차운의 주요 대상은 친족과 오랜 지기(知己), 그리고 문인(門人) 등이었으며 이들과 함께 공유했던 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한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등이 주요 정서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의 시에 차운한 경우는 고인의 시를 접했던 공간에서 고인이 시를 지었던 상황에서 촉발한 감정이 주요 창작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자신의 시에 첩운한 경우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독백하듯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46) 차운시 이외에 교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로는 송시(送詩)와 증별시(贈別詩)가 대표적이다. 『약천집』 소재 송시는 권1에 <送洪端川錫龜之郡任>, <送別李寧叔觀成至白鷺洲>, <送族叔北青判官夢星>, <送皓卿>, <送洪靈光錫箕之郡任>과 권2에 <送懷認禪師往謁松山南尚書雲卿閒居>, <送崔文叔奎瑞使燕>, <送永柔吳使君命峻>, <送赴燕使李判尹光夏>, <送副使李參議鏐>, <送姜書狀履相>, <送崔評事昌大 赴北> 등 12제가 있으며, 증별시는 권1에 <將赴淸州廣津別墅 別寧叔吳弟>와 권2에 <白江津. 沈進士權自浮山寺, 二客乘小舟來別>, <宿花房寺. 贈文眼, 應森二師>, <贈河生尙瑜>, <鴨江舟中別灣尹>, <贈朱生>, <贈五生>, <文江城益漸始播木綿於吾東, 有衣被之功, 吾八世祖左相公按嶺, 以文祭其墓, 昨年余謫江陵, 江城後裔來乞詩, 病未能塞其請, 今又勤訪琵琶潭, 以一篇題贈>, <鄭生復先當寒遠訪書贈>, <贈晦雲菴僧敬璉>, <贈別朱生楹>, <贈徐塾>, <贈碧虛上人>, <贈視疾御醫> 등 14제가 있다(차운하여 준 시의 경우 차운시에 포함하였다).

남구만의 차운시는 원운자와 함께 했던 사적 기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공감대와 친밀도를 높였고, 비(比)나 흥(興)과 같은 간접적인 수사법 보다는 부(賦)와 같은 직접적인 서술방법을 선택하여 마치 원운자에게 말하듯이 감정을 표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시제(詩題)와 병서(并序)를 통해서 차운 대상에 대해 소개하고 시작(詩作)의 배경을 노출함으로써 독자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작가 자신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남구만 차운시의 형상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당대 문인들의 차운시와 비교 고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남구만과 친분이 두터웠던 소론계 인사들의 차운시 양상이 함께 분석되면 남구만 차운시의 특징과 그의 차운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자 료】

- 金萬基, 『瑞石集』, 한국문집총간 144, 민족문화추진회.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131-132, 민족문화추진회.
南龍翼, 『壺谷集』, 한국문집총간 131, 민족문화추진회.
南鶴鳴, 『晦隱集』, 한국문집총간 51, 민족문화추진회.
朴世堂,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134, 민족문화추진회.
李端夏, 『畏齋集』, 한국문집총간 63, 민족문화추진회.
李敏敍,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44, 민족문화추진회.
崔昌大, 『崑崙集』, 한국문집총간 183, 민족문화추진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논 저】

- 강성위(1998),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중국문학』 30, 한국중국어문학회.
김묘정(2017), 「藥泉 南九萬의 연작영물시 고찰 — 「영유시」 20수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김영주(2003), 「藥泉 南九萬의 문학회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남구만 저·성백효 옮김(2004), 『국역 약천집』 1, 민족문화추진회.
성당제(2004), 「藥泉 南九萬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은경(2017), 「차운시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 윤선도의 시를 대상으로」, 『동양학』 6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장세후(2008), 「퇴계의 중국문인 차운시」, 『퇴계학논집』 3, 영남퇴계학연구원.
장세후(2008), 「여현 장현광 차운시 소고」, 『퇴계학논집』 1, 영남퇴계학연구원.
劉 旻(2013), 「中山詩話」, 『역대시화』 3, 소명출판.
이황진(2018), 「남구만의 교유인물과 『약천집』 「시」의 편집성향」, 『우리문학연구』 59, 우리문학회.
이황진(2017), 「남구만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국학연구』 33,

202 인문논총 제76권 제4호 (2019.11.30)

한국국학진흥원

이황진(2017), 「약천 남구만의 유배시 연구」,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하문환·김규선 역(2013), 『역대시화』 3-6, 소명출판.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3일

계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A Study on the Rhyme-Borrowing Poems of
Yakcheon (藥泉) Nam Gu-man (南九萬)

Kim, Hyojo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argets of rhyme borrowing and imagery patterns by considering the rhyme-borrowing poems of Yakcheon (藥泉) Nam Gu-man (南九萬, 1629-1711). Among the 281 poems included in Vol. 1 and Vol. 2 of *Yakcheonjip* (藥泉集), a collection of Nam Gu-man's works, 62 stanzas and 82 verses that occupy nearly 30% of them refer to the rhyme-borrowing poems. It is worthy of notice that about 30% of the poems in existence have rhyme-borrowing features.

58 rhyme-borrowing poems of Nam Gu-man where rhymes that were borrowed while he associated with his acquaintances of the times, including relatives, friends and colleagues; 16 of them were borrowed from the rhymes of the poems of the ancients; and 7 of them repeated the rhymes of his own poems. Nam Gu-man communicated with his acquaintances of the times and enhanced fellowship and intimacy through the rhyme-borrowing poems.

Nam Gu-man's rhyme-borrowing poems have three imagery patterns, as follow. First, he enhanced a bond of sympathy and intimacy by sharing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private memories of the past that he made with the original rhymers. Second, he calmly described what happened to him and the targets of rhyme borrowing or what he wanted to say and directly expressed his emotions by adopting direct description methods, such as prose poems. Third, he helped readers understand the poems and made them remember him long by revealing the details of the rhyme-borrowing situations or reasons for creation and the targets of rhyme borrowing in the titles of the poems or prefaces.